

충남지역 세시풍속의 서술체계

김 명 자 (안동대 교수)

I. 머리말

시·군지, 속칭 ‘향토지’의 세시풍속 서술은, 어느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서 서술방식이 지역마다 다를 수는 없다. 세시풍속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을 설정하여 그것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향토지라는 이름대로 ‘지역성’을 드러내야겠으나 그것은 내용을 통해 추출할 수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서술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복합적인 문화현상인 세시풍속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서술체계, 즉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군지에 기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자료는 기존의 세시기를 옮겨놓은 것이 주를 이루었다.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도 하지만 전재한 경우도 있다. 설사 현지조사한 내용을 수록했다 하더라도 조사일자나, 지역 등 명확한 데이터가 없이 정월부터 차례로 나열하고 거기에 기존의 세시기를 인용하여 어설픈 해석한 것이 기존 향토지의 서술방식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시·군지에 수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뿐 아니라,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곧잘 지적되는 문제다.

요즘의 자료는 조사자나 출처 등의 데이터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만 과거 세시풍속 관련 자료는 출처가 모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데이터가 나타나 있는 현지조사 자료라 하여 모두 좋은 내용은 아니다. 부실한 현지조사 자료 또한 적지 않다. 그러기에 우선 문헌자료든 현지조사 자료든 출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특히 현지조사 자료는 세시풍속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는 정확한 자료여야 한다. 그러기에 현지조사는 데이터를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착실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필영, 「세시풍속 서술의 제문제-향토지를 중심으로-」에서 ‘향토지 민속분야 서술의 일반적 문제’로 제시된 사항은 곧 세시풍속 분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가. 전문성 결여

나. 현지조사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하게 진행된 현지조사에 기초

다. 불역사적 시각

라. 시간·공간·사람 그리고 여러 상황에 따른 민속의 다양성 몰각

마. 민속의 기초개념 및 분류 체계에 대한 몰이해¹⁾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시풍속 조사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 또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내용을 수록하여 민속을 호도하고 ‘독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II. 세시풍속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세시풍속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시작되어 자료집을 비롯하여 연구논문과 저서도 상당수 나왔다. 지금까지 세시풍속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자료편과 연구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적지 않다. 또한 연구저서나 논고 가운데서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개설적인 논의만을 편 기초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이밖에 에세이류의 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기초적인 연구 가운데에는 『東國歲時記』를 비롯한 기존의 세시풍속 민속지를 참고로 하여 엮었거나 여기에 현장조사 내용을 삽입시켜 해석한 것이 많다.²⁾

연구논문 내지는 연구저서마저 이러한 상황이고 보면 종전의 시·군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시·군지의 세시풍속 서술은 책의 성격상 민속지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는데 온전한 민속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바르지 못한 조사 내용으로는 온전한 민속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온 시·군지의 경우 대부분 조사일자와 조사자 등 데이터도 없이 정월부터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시·군지의 세시풍속 자료라 하여 다른 연구자료와 다를 수는 없다. 비록 연구논고는 아닐지라도 여기의 자료 역시 확실한 민속지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 자료는 지역의 기초자료가 되며 아울러 지역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세시풍속 연구의 경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몇 연구자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³⁾ 필자가 이들 논의를 참고하면서 종합하여 요약한 내용을 간략

1) 이필영, 「세시풍속 서술의 제문제-향토지를 중심으로-」, 『한국세시풍속대사전 편찬 방향 검토』(『한국세시풍속대사전』 편찬 관련 학술세미나 유인물), 국립민속박물관, 2002, 47쪽.

2) 김명자, 「한국세시풍속 연구의 사적 검토」, 『동계 성병희박사 화갑기념 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1990, 357쪽.

3) 세시풍속의 연구경향과 앞으로의 경향을 제시한 논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명자, 「한국세시풍속 연구의 사적 검토」, 동계 성병희박사 화갑기념 『민속학논총』, 형설출판사, 1990, 357~379쪽.

임재해,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23호, 민속학회, 1990, 285~308쪽 참조.

김명자, 「세시풍속의 연구」, 최인학박사 화갑기념논총 『한국 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361~376쪽.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한국 의례문화 연구사 및 연구방법』, 1997, 58~70쪽.

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세시풍속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대신한다.

실학시대의 세시기를 시작으로 신문화가 들어온 이후 1960년대까지 ‘풍속소개’ 정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던 세시풍속 연구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인식에 따른 접근으로 세시풍속을 보는 안목과 시야가 확대되었으며 방법론도 진전되었다. 반면 質 보다는 量的인 비대 현상도 나타났다.

세시풍속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크게 자료편과 연구편으로 나누어진다. 자료편으로는 『東國歲時記』를 비롯한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한 민속지 및 기존자료와 단편적인 현장조사자료를 묶은 민속지, 그리고 현장조사자료를 묶은 세시풍속 민속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연구논문이나 단행본의 저서 가운데서도 자료를 정리하고 개설적인 논의를 편 기초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시풍속의 연구는 나름의 다양한 접근 방법이 동원되었다. 문헌을 중심으로 고증한 역사적 연구, 현장조사자료와 기존의 문헌자료를 활용한 주술 및 농경세시와 관련된 연구, 제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그리고 제의성을 기반으로 근원적인 의미와 원리파악을 한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날짜를 통해 시간구조를 파악한 논의도 있으며 문화접변 및 변동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 그리고 사회변동과 세시풍속의 변화관계를 추적한 논의도 있다. 이밖에 문학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세시풍속자료 분류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다.⁴⁾ 이처럼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적잖은 업적이 나왔지만 연구과제는 아직도 산적해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극복해야 하므로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자료 소개의 기초적인 논의를 편 것을 연구업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물량이 많다 하여 모두 연구업적으로 축적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⁵⁾

세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요약해 본다.

- * 주기성과 관련된 논의를 한다 : 나날의 주기성과 계절의 주기성에 따른 생활양식의 반복성 문제.
- * 시점 문제와 역사적 논의를 한다 : 통시적 관점의 시점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연구. 시대사적 비교를 시도한다.
- *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 * 생업에 따른 세시풍속의 특성을 밝힌다.
- * 종교적 연원을 구별한다.

정승모, 「세시풍속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조사방법」,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세시풍속Ⅱ-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 1998, 457~471쪽.

김명자,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편, 『민속연구-마을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1집, 민속원, 2002, 101~132쪽.

4) 김명자, 「세시풍속의 연구」, 최인학박사 화갑기념논총 『한국민속연구사』, 지식산업사, 1994, 367쪽.

5) 김명자, 앞의 논문, 세시풍속의 연구, 371쪽.

- * 행사의 지역적 범위 또는 단위를 명확히 한다.
- * 전승주체를 파악한다 : 세시풍속의 향유주체인 공동체의 계층·지역·직업·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층위를 설정할 수 있는 논의를 한다.
- * 행위의 상징성에서 세시풍속의 본질을 찾는다.
- * 폭넓은 자료의 확보와 비교연구를 한다 : 지역간의 비교, 마을의 성격을 비롯하여 계층, 직업에 따른 비교 및 인접국과 비교·연구한다.
- *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개별 세시에 대해 논의한다.
- * 세시풍속 자료의 분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 새롭게 정착된 풍속과 세시풍속,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세시풍속이 애초 생활리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으며 새롭게 수용 또는 재조명되고 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 진전되어야 한다.⁶⁾

III. 시·군지 세시풍속의 서술체계

조사된 세시풍속 자료는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지금까지 세시풍속 서술은 월별, 계절별 순차적인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실상 일년의 세시풍속 모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담는가가 관건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시풍속을 조사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달에 무엇을 해먹고 어떤 놀이를 하였는가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아니라⁷⁾ 명제를 조사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세시풍속 자료에 대해 선별적으로 서술방식을 살펴보면서 방안을 제시해본다. 여기 소개된 것 가운데에는 시·군지 외의 것도 있는데 그것은 서술체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1. 『충청남도지』 하권,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1979.

세시풍속편에서는 각 달[月]에 대한 표시도 없이 각 세시풍속의 제목 속에 달 표시를 했다. 정월부터 선달까지의 세시풍속을 1번부터 번호를 넣어 그대로 서술했다. 이는 『동국세시기』의 내용을 베낀 전형적인 향토지다.

2. 공주군 편, 『공주전통과 맥』, 1987.

6) 김명자,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편, 『마을민속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민속연구』 제11집, 2002, 민속원, 130~132쪽.

7) 정승모, 「세시풍속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조사방법」,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세시풍속Ⅱ-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 1998, 457쪽.

세시풍속편에서는 정월부터 섣달까지의 세시풍속을 각 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기존의 세시기를 베끼면서 간간이 토를 달았다. 가령 공주 지역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이러한 풍속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서술을 했는데 여기 세시자료는 오히려 독서에 해를 입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남편의 세시풍속 및 놀이, 1977.

세시풍속편에서는 정월부터 섣달까지의 세시풍속을 월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마지막에 윤달의 세시를 기술했다. 민속놀이 부분은 세시놀이와 일반놀이를 통합하여 서술했는데 크게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로 나누었다. 여기 수록된 세시풍속과 놀이는 현지조사 자료로서 일부의 시·군지 민속편은 이 보고서를 그대로 옮기거나 서투르게 요약, 옮겨놓은 경우도 있다.⁸⁾

4.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편, 『서산민속지』(상), 서산문화원, 1987.

서산군과 서산문화원의 지원하에 서산민속조사단을 구성, 1986년부터 1987년 8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만든 일정지역의 민속지. 대규모의 지역민속지로는 처음일 것이다. 세시풍속 자료는 18개면을 대상으로 각기 한 마을씩 현지조사한 것이며 정월부터 섣달, 그리고 마지막에 윤달의 세시풍속을 기술했다. 모두 현지조사 자료로서 본문 속에 전승 여부를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각 지역마다 별도로 서술했을 뿐 서산군 전체의 세시를 종합하여 특징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는 없다. 같은 서산군이기 때문에 공통되는 것이 있는 반면 차이도 있을 것이다. 80년대 작업으로 초창기의 세시풍속 민속지라 할 수 있는데 그 시절의 한계가 그대로 노정된다.

5. 양인식 편저, 『놀이의 민속』, 논산문화원, 1987.

충남 민속과 관련한 많은 책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신빙성 문제가 이 책에서는 비교적 해결되어 있다. 곧 어느 정도 착실하게 수행된 현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제1장 세시풍속은 정월부터 섣달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으로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조사자는 논산이 넓은 평야를 중심으로 농사를 주로 지어왔기에 세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시는 지역민들의 증언을 따라 기록했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꾸몄다. 그러나 실제 본문 내용에서는 어느 세시풍속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노인들의 기억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한 두 세대 전의 민속은 어떤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상당 부분은 『동국세시기』의 내용이 전재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⁹⁾

8) 이필영, 「충남 민속연구의 현 단계」, 『충청문화연구』 제3집,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2, 9쪽.

9) 이필영, 앞의 글, 「충남 민속연구의 현 단계」, 28~29쪽.

6. 한상수 편저 『충남의 풍속』, 한국예총 대전·충남도지회, 1990.

제13장 세시풍속에 수록된 자료가 어떠한 문헌자료와 현지조사 자료에 의거하고 있는지 전혀 한 군데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단 하나의 참고문헌이나 출처도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도무지 어떤 자료에 근거한 충남 민속인지 궁금하다. 마치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독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¹⁰⁾

7. 대전대 지역사회개발연구소, 『금강유역의 전통문화』 (1), 1991, 3.

세시풍속에 대한 서술은 윤달에 대한 민속이 빠진 채 그냥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일반적인 상황이 개괄되어 연기군과 공주군 세시의 특성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서 한국의 일반세시기인지 연기·공주 지역 세시기인지 전혀 구별이 없다.¹¹⁾

8. 『대전시사』 민속편, 1992.

민속을 전공하는 연구자에게 각자의 전공에 맞추어 집필 의뢰. 여기 세시풍속이 (원문에서는 세시풍습) 현지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점¹²⁾은 앞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서산민속지』와 더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세시내용은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별로 나누어 기술했다.

9. 이필영, 「삼시도의 민속」, 『충청문화연구』 제4집,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6.

세시풍속 부문에서는 현지조사 내용을 봄철의 세시, 여름의 세시, 가을의 세시, 겨울의 세시로 나누어 3개월 단위로 간략하게 서술했다. 월별에서 순차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계절별로 서술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0.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세시풍속』 I-서울·경기·강원·충청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보령군 청소면 진죽리, 서천군 중천면 산천리, 논산군 채운면 화정 2리, 공주군 탄천면 광명리,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내용을 봄·여름·가을·겨울철의 4계절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이들 자료 끝부분에 새로운 장을 만들어 정밀조사 자료를 채록하여 수록, 나름대로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지만¹³⁾ 한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고 산만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다.

10) 이필영, 앞의 글, 「충남 민속연구의 현 단계」, 17쪽.

11) 이필영, 앞의 글, 「충남민속연구의 현 단계」, 20쪽.

12) 이필영, 「충남 민속연구의 현 단계」, 27~28쪽.

13)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설화 조사 후 이런 방식으로도 기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채록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여 현장감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충남 관련 세시풍속 자료는 이밖에도 각 시·군지에 수록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논자가 직접 보았거나 직접 찾지는 못했으나 참고가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3, 4, 8, 9, 10의 자료처럼 철저하게 현지조사 자료를 수록한 것이 있는 반면 현주소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사실상 데이터가 확실하게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우 전문 연구자들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여 만든 경우다. 위에서는 시·군지의 경우 『대전시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기존의 세시기를 베껴 책을 꾸몄다. 시·도·군청 문화공보실과 문화원 주도의 민속조사연구에서 세시풍속의 경우 18·9세기의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등을 그대로 적당히 베껴내어 이것이 해당지역의 세시풍속인지 한 두 세기 전의 한양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세시풍속의 내용인지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였다.¹⁴⁾

요즘은 이러한 제목이 사라졌지만 종전에 지역마다 있었던 ‘내고장 전통 가꾸기’류의 책들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의 표본이었다. 반드시 현지조사 자료만을 수록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만, 기존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도 그 지역의 세시풍속을 추출해서 수록해야 한다.

다음에 소개되는 ‘향토지 세시풍속 서술의 제 문제’는 향토지 서술체계의 한 획을 그어줄 뿐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다른 민속 분야의 서술에도 참고할만한 것이다.

가. 질과 양 모두 미흡.

나. ① 앞의 ‘향토지 민속분야 서술의 일반적 문제’로 언급한 한계가 그대로 반영.

다. 특히 시·군지를 중심으로 한 향토지의 경우 현지조사 결여. 이런 경우 18·9세기에 나온 『경도잡지』·『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 등을 부분적으로 轉載. 그 결과 기술된 세시풍속이 해당 지역의 것인지 아니면 당대의 한양을 중심으로 한 세시기인지 구별이 가지 않음. 시간성과 지역성 혼선 야기.

대부분의 시·군지류 민속부문에서는 출처 불명의 세시자료 제시. 자료 이용 불가. ‘특정 지역 세시의 전국적 획일화’. 세시를 통해서는 전혀 지역적 특성 이해가 불가능 상태. 아주 간혹 성실하게 작성된 경우라도 시·군의 지역 단위 안에서 지역적 편차가 서술된 경우는 全無.

민속지의 경우 사정은 다소 나은 편이나 역시 부실한 세시에 대한 현지조사가 문제.

② 서술의 체계는 거의 대부분 월별에 따른 관련 행사를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식. 정월부터 설달, 윤년, 그리고 月中. 다소 진보된 형식은 생산력과 의례력을 도표화하여 제시. 이같은 서술방식과 그에 따라서 기술된 내용이 충분하고 완전한 상태라고 해도, 이는 세시를 보는 일정한 관점이 없거나 빈약하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 세시관련 행사

14) 이필영, 앞의 글, 「충남 민속연구의 현 단계」, 23쪽.

와 그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의미, 역할에 대한 설명 곁여.

③ 서술의 수준은 매우 피상적이며 단순하기 때문에 자료의 다각적 활용면에서 문제. 이는 세시서술 대상과 그 범위와 관련된 문제. ‘문화복합’ 개념의 차원에서 서술.

④ 세시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미분화된 서술.

⑤ 세시의 지역적 특성과 그 배경에 대한 서술 곁여.¹⁵⁾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대로 인용한 까닭은 필자가 위 내용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를 모두 극복하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결코 수월하지 않다. 특히 ③항의, 시·군지의 세시자료는 지역 문화를 드러낼 뿐 아니라 연구 자료로서 이용될 수도 있어야 하므로 다른 민속지와 크게 다를 수 없다.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을 베끼거나 부실한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는 누를 계속 범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토지의 민속 자료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종전에서의 방식이나 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반면 시·군지는 전문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세시의 내용을 월별, 또는 계절별로 나누어 서술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세시풍속이 복합적인 문화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문화현상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종전의 민속지 경우, 여러 지역의 세시를 제한된 지면에 수록하려다 보니 단순한 서술이 된 경우도 있었다.¹⁶⁾

위의 ④ ‘지속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사방법과 항목에서 논의되겠지만 전승여부를 파악하면서 그 사적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⑤ 세시의 지역적 특성과 그 배경에 대한 서술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세시풍속 자료는 월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다소라도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춘하추동 4계절로 나누고 끝에 윤달의 세시를 서술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들 서술된 자료를 월별 순차적으로 도표화하면 한결 일목요연해진다. 순차적인 서술을 하되 도표화 역시 명칭이나 날짜, 음식, 전승여부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세시의 특성을 드러낼만한 요소를 추출하여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세시풍속이 생활문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업력을 함께 서술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를 서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자 독립적인 서술을 한다면 세시와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다. 농사력이든

15) 이필영, 「세시풍속 서술의 제 문제- 향토지를 중심으로-」, 『한국세시풍속대사전 편찬 방향 검토』, 국립민속박물관 주최 『한국세시풍속대사전』 편찬 관련 학술세미나 유인물, 47~48쪽, 2002. 3.

16)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세시풍속Ⅱ-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 1998. 필자는 경북 편 작업을 했는데 실제 조사 내용이 모두 수록되지 못했다. 조사 지역이 8개 마을로서 조사내용이 다양했지만 원고 매수가 제한되어 간단하게 서술하고 도표화했다. 곧 세시풍속 관련 행사 내용만 서술했으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은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어업력이든 그밖에 생업은 과연 세시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조사방법과 항목

세시풍속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연구 업적 역시 양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된 세시풍속 자료와 연구를 통해 ‘민중의 생활사’를 조명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세시풍속이 당대 사람들의 생활리듬인 동시에 생활양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활사 조명은 필연적인 것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세시풍속을 조사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달에 무엇을 해먹고 어떤 놀이를 하였는가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아니다.¹⁷⁾ 그러한 일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민속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세시풍속은 누구나 조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렇듯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은 객관화된 학문적 이론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더라도 그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민을 하려하지 않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는 전공자가 온전하게 연구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연구자끼리 학문적 ‘토론’이 없었던 점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¹⁸⁾

세시풍속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갖는 역사성과 지역성, 그리고 그 시대의 공간에서 살았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을 때에만 비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농경사회의 풍속은 대부분 1년을 주기로 하는 농사력에 따른다. 그러므로 풍속, 특히 세시풍속의 형성과 변화에는 이러한 농사력을 변화시키는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선행되기 마련이다. 세시풍속은 음력 월별(月別), 24절후, 명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른 여러 행사를 포괄한다. 따라서 세시풍속은 직접 생산자인 민중들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시간적 개념과 관념을 함축하고 있는 역법체계(曆法體系)의 표현인 것이다.¹⁹⁾

이밖에도 세시풍속은 농사의 방법과 시기를 비롯하여 행사의 주체, 종교적 전통 등 개별적인 사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는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17) 정승모, 세시풍속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조사방법,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의 세시풍속 II-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편, 1998, 457쪽.

18) 김명자, 앞의 글,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 102쪽.

19) 정승모 앞의 글 참조.

세시풍속 자료 조사는 조사자가 전체 내용을 기억하여 다달이 행해지는 내용을 묻는 방식을 많이 취했다.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지를 만들기도 한다. 박계홍은 『韓國民俗學概論』의 민속학방법론 부문에서 민속조사 질문사례의 예를 들었다.²⁰⁾ 이 가운데 세시풍속 자료조사를 위한 질문 사례는 크게 춘절, 하절, 추절, 동절로 나누어 각 달에 들어있는 명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월 보름에 잠곡밥을 먹습니까.,” “단 오에는 어떤 놀이를 합니까.” 등의 방식으로 질문하여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질문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지극히 기초적인 것이다. 어느 달에 어떤 세시명절이 있으며 그날 어떤 행사가 행해지는가 하는 세시풍속의 개괄적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생활상을 조명하기는 어렵다. 지역성과 행사의 특성을 찾아내기는 더욱 어렵다. 정승모, 「세시풍속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조사방법」은 앞으로 세시풍속 조사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이 조사방법은 이제까지의 방법을 상당히 극복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김명자는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에서 정승모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하면서 조사와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현지조사하여 자료 정리를 하더라도 자료 자체가 정확해야 한다. 향토지에 소개된 자료는 지역성을 말해줄 뿐 아니라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자료야말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엉성한 현지조사자료에 적당하게 아는 지식을 붙이거나 혹은 기존의 세시기 내용을 부분적으로, 때로는 그대로 옮겨 ‘지역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를테면 현주소 없는 세시풍속’ 소개에 그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것은 현장자료를 필수로 하는 다른 민속 분야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향토지는 독서만 저해할 따름이다.

사실상 많은 시·군지의 세시풍속 자료들이 그런식이어서 어느 향토지를 보더라도 전국 것이 똑같은 현실에 접하게 된다. 그래서 문헌섭렵과 현장조사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문헌자료를 통한 기초자료 조사

온전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하며 치밀한 자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료에는 문헌자료와 현장자료[현지자료]를 들 수 있겠는데 이들을 함께 섭렵해야 한다.

문헌자료를 통해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다.

향토지에서 세시풍속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우선 충남관련 문헌을 추적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헌은 기존에 세시풍속을 조사하여 보고한 민속지는 물론 충남지역 관련 문헌을 섭렵한다. 세시풍속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나온 것뿐 아니라 기존에 나온 세시기에서 충남지역의 세시풍속을 추출한다. 가령 조선조 말에 간행된 세시기인 『경도잡

20) 박계홍, 『韓國民俗學概論』, 형설출판사, 1983, 408~420쪽.

지』·『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 등에서 충남 관련 세시풍속을 추출하는 것이다.

정승모, 「세시관련 기록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세시풍속의 변화」²¹⁾는 세시풍속의 문헌 추적 방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일생의례 분야지만 이필영, 「민속의 지속과 변동: 출산의례 중의 안태를 중심으로」²²⁾ 역시 문헌 추적의 방법을 보여준 표본적인 사례가 되리라 본다.²³⁾

문헌조사를 통해 세시풍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밖에 지역의 성격을 비롯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도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근세 자료는 ‘사례조사’²⁴⁾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2. 조사항목

현지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해 드러나는 유형·무형의 문화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지역이 선정되면 문헌을 통해 그 지역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한다. 선정된 지역은 종전에 조사된 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참고자료가 있다는 강점과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후자라 하여 강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선입견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밖에 옛문헌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적하는 방식도 있다. 일종의 ‘사례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문헌자료가 오랜 것일수록 조사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역사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한다면 문헌자료를 통해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다.

세시풍속자료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들어본다.

1) 대상지역의 성격 : 큰 단위로는 농촌·어촌·산촌·도서(島嶼)·도시 등 지역의 생태조건과 관련하여 지역[마을]을 선정한다.

2) 마을의 전반적인 성격 파악 : 마을의 역사, 입지조건, 성씨 분포, 생업, 인구동태, 문화환경 등을 파악한다.

3) 세시행사에 대한 기초조사

* 세시행사명칭 : 호칭·이칭·관련명칭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한 예로 경북 안동지역에서 음력 7월 중순에 행하는 풋구²⁵⁾를 경북 선산지역

21)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역사민속학』 제13호, 민속원, 2002, 49~69쪽.

22) 이필영, 「민속의 지속과 변동: 출산의례 중의 안태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13호, 7~29쪽.

23) 사실상 이들 논문만큼 심도있게 시·군지에 수록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문헌 추적을 그만큼 밀도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로 들었다.

24) 이미 조사된 적이 있어 그 자료가 나와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다시 새롭게 조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25) 풋구는 대체로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 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음력 7월 중순 대신 양력 8월 중순, 또는 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에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처럼 마을

에서는 ‘꼼비기’라 하는 반면 전남 진도에서는 ‘길꼬냉이’라고 한다.

- * 세시행사 시기와 기간 : 월별·계절별·절기별·격년 주기 등 세시가 치러지는 시기, 그리고 기간을 파악한다.
- * 기준력 : 세시행사가 적용되는 역법은 원래 태음태양력[음력]이다. 그러나 요즘은 농사도 양력기준이 가능할만큼 양력 역법을 전반적으로 활용한다. 양력을 기준으로 새롭게 생성된 풍속의 경우 아직 세시풍속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²⁶⁾가 있어야 하겠으나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도 일단은 조사한다. 이는 또한 오늘날의 풍속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24절기의 경우 양력으로 고정된 날짜지만 순수하게 태양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력 자체가 태음력과 태양력의 혼합인 것처럼 24절기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4절기의 하나인 동지는 양력날짜로는 고정되어 있으나 음력으로는 초순에 들거나 중순 또는 하순에 들기도 한다. 그렇다 하여 순수하게 양력기준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여기에는 음력도 작용한다. ‘동짓달’이라는 말이 음력 11월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 세시행사의 층위(단위) 또는 범위 : 개인단위(가족단위), 자연마을단위, 행정마을단위, 면단위, 여러개의 면단위, 군단위, 도단위, 현단위, 전국단위 등 층위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전통사회의 경우 현단위 세시도 적지 않았다.
- * 세시행사의 장소 : 개인의 집안 또는 마당, 마을공터, 마을산, 마을밖, 면, 관아와 장터 등 세시의 장소가 어디인가를 파악한다. 전통사회에서는 관아와 장터 등이 세시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 * 세시행사의 조직 : 세시가 주관되는 조직이 공식조직인가 사적조직인가를 파악한다. 또 조직의 규모와 인적구성을 아울러 조사한다.
- * 행사의 주체 : 행사의 주체는 성별·연령별 및 계층·신분·직업에 따라 나누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파악한다. 예로 세시놀이의 경우 여성놀이와 남성놀이를 나누어지기도 한다.
- * 행사규모 : 세시의 참가인원과 참가자의 수 및 구성원 등을 파악한다.
- * 행사참여 외부인 : 세시는 복합적인 문화현상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 못지 않게 참여자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줄다리기를 할 때 이웃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고 강릉단오제와 같은 큰 행사 때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웃 마을 뿐 아니라 도시 이주 주민, 지역유지, 행정인사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흐드러지게 놀지는 않지만 소소하게나마 정을 나누며 하루를 쓴다.

- 26) 사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 없이 근래들어 해마다 하는 행사를 세시풍속에 포함시키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필자는 크리스마스와 같이 양력 기준의 특별한 날은 시간적 깊이가 심화되고 전승문화로서 융해되어, 우리의 풍토와 어우러질 때 세시풍속으로 정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새로운 ‘풍속도’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김명자, 세시풍속의 연구, 최인학박사 화갑기념논총, 한국민속연구소, 지식산업사, 1994, 374~375쪽.

의례전문가가 참여할 수도 있다. 별신굿 때에는 무당과 같은 의례 전문가가 관여한다. 그밖에 법사나 잼이 등도 관여할 수 있다.

* 행사비용 : 세시행사에 쓰이는 비용의 부담주체와 조달방식을 조사한다. 조달방식은 추렴을 비롯하여 원래의 기금, 또는 공동재산이 있으며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행사도구, 시설 및 관리 : 농기(農旗)를 비롯한 각종 기(旗), 풍물에 쓰이는 악기류와 복식류, 그밖에 도구류·시설물 등을 조사한다.²⁷⁾

(4) 세시의 전승여부 : 우선 전승여부를 파악하고 아울러 언제부터 했는가, 단절되거나 쇠퇴되었다면 언제부터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조사한다. 또 다시 시작되었다면 그 시기와 원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한다.

(5)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시기에 맞춰 현장을 찾는다. 살아있는 자료를 얻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다.²⁸⁾

(6) 세시풍속을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민속 전반 조사

세시풍속 자체의 조사 뿐 만 아니라 관련분야조사를 통해 세시의 구성요소와 그 역할 등을 파악한다. 예를 들면 세시관련 유래담, 그리고 세시와 민속신앙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함께 조사한다. 마을신앙은 세시에 으레 포함되는데 가신신앙의 경우도 대부분 세시와 직결된다. 세시풍속은 복합적인 문화현상이어서 세시와 관련된 설화와 민속어휘, 놀이, 생업, 관련음식, 복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어느 정도 다른 분야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지만 보다 밀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의례력, 생업력과 함께 일상생활 조사

세시풍속 조사에서 의례력과 더불어 생업력을 조사하는데 이것 뿐 아니라 그곳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살이를 함께 조사한다. 전통사회에서 세시는 생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루살이, 이를테면 일상생활을 통해 생업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다시 세시와도 연계성을 지닌다. 하루살이는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이를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²⁹⁾

27) (3) 세시행사에 대한 기초조사 항목은 정승모, 앞의 글, 「세시풍속 연구의 새로운 관점과 조사방법」, 462쪽의 항목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했다.

28) 필자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조사 당시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현장을 찾았다. 1983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마을 청년들이 보름밥[오곡밥]을 흠쳐다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았다. 이 때 주인 집에서는 흠쳐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체 한다. 여러 집을 다니며 흠쳐낸 보름밥은 마을의 일정한 장소(주로 마을의 큰 집 사랑방)에 모여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보낸다. 김태곤·김명자 등, 한국의 산촌민속Ⅱ 노적산 편, 교문사, 1995, 63~64쪽.

29) 여기 조사항목은 김명자, 앞의 글, 「마을사회에서 세시풍속의 조사와 연구」에서 논의된 글을 인용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시·군지에 기록되어 있는 세시풍속 자료는 기존의 세시기를 옮겨놓은 것이 주를 이루었다.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도 하지만 수록한 경우도 있다. 설사 현지조사한 내용을 수록했다 하더라도 조사일자나, 지역 등 명확한 데이터가 없이 정월부터 차례로 나열하고 거기에 기존의 세시기를 인용하여 어설프게 해석한 것이 기존 향토지의 서술방식이었다.

시·군지의 세시풍속 자료라 하여 다른 연구자료와 다를 수는 없다. 비록 연구논고는 아닐지라도 그 자체로도 충분하게 의의를 지닌 민속지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이 자료는 지역의 기초자료가 되며 아울러 지역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조사 단계부터 치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시풍속 자료 서술은 월별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다소라도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춘하추동 4계절로 나누고 끝에 윤달의 세시를 서술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들 서술된 자료를 월별 순차적으로 도표화하면 한결 일목요연해진다. 순차적인 서술을 하되 도표화 역시 명칭이나 날짜, 음식, 전승여부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세시의 특성을 드러낼만한 요소를 추출하여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세시풍속이 생활문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업력을 함께 서술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를 서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자 독립적인 서술을 한다면 세시와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없다. 농사력이든 어업력이든 그밖에 생업은 과연 세시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사 항목은 복합적인 문화현상인 세시풍속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 특히 세시풍속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요소를 담아 낼 수 있는 조사와 이에 대한 서술은 세시풍속 자료의 진실성을 담보해주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서술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찾아 낼 수 있으리라 본다.